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홍석률 지도교수
석사학위 청구논문

역사적 사고력 증진을 위한 내러티브
수업 모형

- 동학 농민 운동의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

2016년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역사교육전공

주 정 민

역사적 사고력 증진을 위한 내러티브 수업 모형

- 동학 농민 운동의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

홍 석 루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과 역사교육전공

주 정 민

인 준 서

주정민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6년 5월

심사위원장.....(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서명 또는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최근에는 역사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와 자료를 활용하여 많은 교사들이 수업에서 학생들과 다채로운 수업을 만들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는 학생들이 역사 그 자체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계속적으로 역사에 대한 관심이 유지되는 수업을 추구한다. 학생들도 수업을 통해 다양한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역사라는 과목이 지루하지 않기를 원한다. 다만 교사가 수업에서 너무 흥미를 강조하다 보면 정작 학생들의 역사적 사고력 발달이 저해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역사 내 내러티브를 적용한 수업을 통해 역사적 사고력 함양은 물론 수업에 대한 흥미까지 이끌어내는 수업모델을 정립하려고 시도해보았다.

내러티브 수업모델은 역사의식이 어느 정도 성장한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만들어보았다. 내러티브 수업을 위해선 하나의 중심 소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다양한 수업형태를 구상할 수 있고, 현행 교육과정에서도 배워야할 필수 목표로 제시된 동학농민운동을 소재로 선택한다. 다음으로 해당 소재에 대한 쟁점을 현행 8종 한국사 교과서 분석을 통해 선정한다. 이후 각 쟁점마다 학생들과 어떠한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것인지를 설명한다.

수업 내용은 총 2차시로 진행된다. 교사는 1차시 수업에서 동학 농민 운동의 쟁점에 관련된 개괄적인 내용을 우선 수업한다. 그 다음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바탕으로 “비판적 읽기”를 지도한다. 학생들은 1차 수업의 “비판적 읽기”를 통해 역사사건의 인과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교사는 이후 학생들에게 쟁점을 알려주고 학생들은 토의를 통해 시대구조를 파악한다. 2차시 수업에서는 작성한 활동지를 발표하고 교사와 학생이 수업평가를 통해 역사의식을 공유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목표 의식은 물론 흥미까지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사는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통해 학습에 대한 사후 평가와 수업의 효과를 확인하는 형태로 만들고자 한다.

이상의 수업을 통해 근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동학 농민 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역사적 맥락을 파악하려고 했다. 또한 쟁점에 대한 토의로 역사의식을 공유하고 내러

티브 글쓰기를 통한 감정 이입적 이해를 통해 역사에 대한 사고력 함양과 역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였다. 또한 다양한 사료를 제공하여 학생들에게 심도 깊은 학습내용을 제공하려고 했다.

목 차

논문개요

| | |
|---------------------------------|----|
| I. 서론 | 1 |
| II. 내러티브를 활용한 역사수업 | 6 |
| 1. 내러티브의 개념과 기대효과 | 6 |
| 2. 내러티브 수업을 위한 기본자료 선정 | 9 |
| III. 동학 농민 운동의 주요 쟁점 | 11 |
| 1. 폐정개혁안과 갑오개혁 | 11 |
| 2. 청일전쟁의 원인과 조선인들의 인식과 반응 | 13 |
| 3. 동학농민군과 민보군과 신분갈등 | 15 |
| IV. 내러티브 수업 구성 | 18 |
| 1. 수업모형 및 수업상황 설계 | 18 |
| 2. 학습 계획 및 학습지도안 | 23 |
| 3. 학습 활동지 제작 | 35 |
| V. 결론 및 제언 | 39 |

참 고 문 헌

ABSTRACT(영문초록)

부 록

표 목 차

1. 《표 1》 동학농민운동의 쟁점에 대한 내러티브 수업상황21
2. 《표 2》 학습계획안23
3. 《표 3》 동학 농민 운동 내러티브 교수-학습 지도안 1차시27
4. 《표 4》 동학 농민 운동 내러티브 교수-학습 지도안 2차시32

그림 목 차

1. 《그림 1》 동학 농민 운동의 쟁점에 대한 내러티브 수업모형 19

I. 서론

1990년대부터 역사 교육과정에선 “역사적 사고력의 육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교육부에서도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의 목적을 “역사적 사고력과 역사의식을 신장하고 심화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한다. 그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교실수업개선”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수업개선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현장에 도입하려고 한다. 교사는 이러한 정책들을 실질적으로 수업에 적용함으로써 학생들의 역사적 사고력 육성을 위해 노력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는 강의식 수업을 통해 시험을 위한 암기 위주의 역사 수업을 진행한다. 연구자들은 이런 강의식 수업이 지속되는 이유를 깊이와 범위만을 달리한 채 초, 중 고등학교에서 거의 비슷한 방식의 교육과정이 되풀이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¹⁾.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한국사의 교육과정을 중학교에서는 사회사, 고등학교에서는 문화사로 계열화하고 이를 반영시킨 교과서를 통해 교육과정으로 운영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역사 교육과정을 계열화로 운영할 경우에 학생들에게 이런 교육과정이 실질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는 학자들도 있다.²⁾ 결국 현재까지도 교과서는 여전히 통사로 서술되어 있고 그로 인해 학생들은 교과서 내용을 암기하는 데 급급한 수업이 된다.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배우는 교과서의 내용은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을 단순히 순차적으로 기술한 것이 아니다. 교과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학생들이 “역사의식”을 키우고 “역사적 통찰력”을 성장시키도록 만들어 낸 결과물이다. 또한 현재 나와 있는 현행 고등학교 교과서 8종에서도 이러한 목적을 학생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각 소단원마다 탐구활동을 제시한다. 이러한 탐구활동을 수행하려면 학생들은 교과서에서 비판적 읽기를 통해 역사적인 내용을 분석하고 이해해야 한다. 그럼에도 수업시수 내에 역사를 가르쳐야 하는 시간적인 한계와 더불어 성적평가와 같은 양적인 결과만을 더 중시하는 현재의 교육체계에서 통찰력을

1) 김한중, 「교육과정 구성원리로 본 2015 교육개정」, 『역사교육연구』 23, 2015

2) 방지원, 「역사수업 계열화의 개념과 원리」, 『역사교육연구』 3, 2006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이 제공되긴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수업 대부분을 강의식으로 진행한다.

그러나 강의식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 학생들은 개인인의 생각이나 판단 없이 교사에 의해 교과서에 기술되어 있는 역사사실만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학생의 능동적인 참여보다는 교사의 의도가 많이 반영되는 수동적인 수업이 진행된다. 더욱이 “한국사”가 수능필수 과목으로 지정되면서 고등학교 한국사는 대학진학을 위한 암기 과목 중 하나라는 인식이 팽배해졌다. 이러한 수업 방식을 통해 진행되는 역사교과 수업은 학생들의 역사적 사고력을 키우려는 교육 목적과는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역사를 가르치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통사 중심의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새로운 교수·학습방법을 지속적으로 시도한다.

“역사적 사고를 어떻게 함양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역사교육에서 어떠한 수업 방식이 학생들의 역사적 사고력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³⁾ 역사적 사고력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수업 방법들은 이미 이전부터 많은 연구들을 통해 논의되어 왔다. 특히 학습자 중심의 참여형 수업방법을 실제 수업에 적용시키는 사례가 많았다.

그렇다면 앞에서 언급한 학습자 중심의 참여형 수업을 통해 어떤 형태의 역사 수업을 살펴볼 수 있을까? 우선 영상매체를 활용한 역사교육 방법이 있다.⁴⁾ 영상매체를 통한 수업방식은 역사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어 학습이 쉬워질 수 있다. 다만 영상매체를 통한 역사인식은 사실왜곡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역사를 다루고 있는 영상은 다수를 위해 흥미적인 요소를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의 허구가 존재하고 역사적 사실들이 왜곡될 수 있다. 그러

3) 미국 역사학계에서는 역사적 사고력에 대해 1)연대기적 사고, 2)역사이해, 3)역사연구능력, 4)역사분석과 해석, 5)역사 쟁점 분석과 의사 결정으로 나누어 판단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90년대부터 이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으로 김한종과 최상훈에 의해 사고력의 범주를 세분화시켰다. 김한종은 역사적 사고력을 “역사적 탐구능력”과 “역사적 상상력”으로 나눈 반면 최상훈은 “연대기적 파악력”, “역사적 탐구력”, “역사적 감정이입”, “삽입”의 네 단계로 분류하였다.(김한종, 「역사적 사고력의 개념과 그 교육적 의미」, 『역사교육의 이론과 방법』, 삼지원, 1997; 최상훈, 「역사적 사고력의 의미와 하위범주」, 『역사교육과 역사인식』, 책과 함께, 2005)

4) 오연미, 「역사수업에서의 영화역사 활용의 일례: “도마 안중근”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 2009; 이해경, 「영화를 이용한 역사수업: 역사적 사고력 향상을 중심으로」, 중앙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5; 최재욱, 「영화를 활용한 주제중심 학습모형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4

므로 역사적인 지식이 부족한 학생들의 경우 이러한 왜곡적인 사실들을 받아들여 비역사적인 인식이 생길 수 있다.

다음으로 사료나 추가적인 교육교재를 통해 교수·학습방안이 있다.⁵⁾ 사료 중심적 수업방식은 추가적인 자료들을 통해 역사사건의 성격을 이해하고 다른 역사가들의 관점을 비교할 수 있다. 그러나 사료에 대한 비판적 읽기가 동반되지 않고, 사료를 분석하는 능력이 교사나 학생들에게 없을 경우, 오히려 역사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객관적인 역사 답론 형성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⁶⁾

그래서 최근에는 학습자 중심의 참여형 수업에 대한 교수·학습의 방향으로 내러티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내러티브는 스토리, 이야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특정한 인물과 사건을 통해 “다양성 내의 통일성”을 이야기 구조를 통해 만들어낸다.⁷⁾ 그렇지만 그 이야기 구조에는 인간의 의도와 행동, 그리고 그 과정을 묘사하여 주로 이야기, 드라마, 역사서술에 적용되는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러티브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러한 경험을 재구성하는 것을 중시한다. 교실 현장에서는 학생들에게 교사와 상호 작용을 통한 수업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결국 교사도 학생도 수업을 경험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내러티브 수업은 역사사건의 인과관계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고 학습자의 경험을 통해 역사적인 이야기를 구성하는 수업의 형태이다. 또한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 인문학적 사고를 키워줌으로써 교육 목적인 “역사적 통찰력”이 발달할 수 있게 한다.

역사 내러티브의 목적은 구조나 과정, 환경이 아닌 인간에 주목하기 때문에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논지를 잘 표현하고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의 목적도 인간의 성장과 형성에 관한 과업이 인간의 이해와 경험의 성장을 통해 사적, 공적영역으로 발전하며 자신의 세계가 확장되는 것이다. 역사 내러티브 수업에서

5) 신수정, 「고등학교 세계사 교육에서의 사료학습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4.; 홍정환, 「사료학습을 활용한 역사수업 구성: 고등학교 국사 ‘근대 태동기의 사회’ 단원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6) 강선주, 「역사교육의 목적과 초등교사 역사교육관」, 『역사교육』 108, 2008

7) 내러티브는 사건을 한데 모아 줄거리를 만드는데 이야기의 주제와 관련되는 사건은 중요성과 의미를 부여받으며 이러한 줄거리는 여러 사건을 하나의 통일체로 형성하고 그 사건들을 단순히 연속적이거나 독립된 우연적 사건에서 전체적인 주제로 경험하는 의미는 사건으로 변한다.

교사와 학생은 상호 교환하는 과정이 증가하고 이를 통해 역사를 이해하는 능력에 향상된다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⁸⁾ 역사 내러티브와 교육이 추구하는 목적이 일치한다.

본 논문에선 고등학교 1학년을 수업대상으로 지정하고 역사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내러티브 교수-학습활동 수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동학 농민 운동”을 소재를 제시한다.

이 내러티브 수업은 단순한 암기 위주의 강의식 수업이 아니라 토의과정을 거쳐 문제를 해결하고 감정이입을 통해 역사의식이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시대의식이 발달하고 인과관계를 이해할 수 있으며 시대구조와 시대관련을 파악할 수 있는 학년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시간적인 여유도 어느 정도 있어서 학생들이 현행 교과과정과 교과서내용을 연계하는 학습자 수업을 할 때 역사적 사고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수업시간을 다채롭게 활용 할 수 있는 고등학교 1학년이 수업대상으로 적절하다.

“동학 농민 운동”을 역사 소재로 선정한 까닭은 첫째, 학생들이 이 소재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논의들을 학생들과 이야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항 이후 조선은 외세에 의한 정치, 경제적인 혼란을 겪으면서 많은 변화를 경험했다. 더욱이 민씨 정권의 부패로 인해 매관매직이 성행하고 관직을 산 수령들의 수탈로 인해 많은 민란과 변란이 일어났다.⁹⁾ 동학 농민 운동¹⁰⁾은 그러한 혼란 속에서 지배층의 항거에 대항하여 농민들이 개혁을 요구했던 중요한 사건이다. 또한 동학 농민 운동은 소규모의 군현단위로 발생했던 이전의 농민들의 항쟁 혹은 봉기와는 다르다. 농민층 다수가 군현단위를 넘어 지역적 조직망을 갖추고 지배층에 대항했다. 그러한 결과로 농민들 스스로가 “개혁안”을 통해 평등한 사회에서 만

8) 이승은, 「내러티브란 무엇인가」, 『교육비평』 29, 2011

9) 경상, 충청, 전라도 등 삼남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농민봉기에서 “민란은 삭막한 시골에 자극을 주는 반면 패배에 대한 경험을 가중시키고 이렇게 가중된 패배의 경험은 더욱 벼슬에 대한 집착과 더불어 가짜 양반을 양산하는 ‘과잉 순응’으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강만준, 『한국 근대사 산책 1』, 인물과 사상사, 2008)

10) 동학 농민 운동은 동학농민의 배경(정치적, 사회경제적, 사상적), 직접적 계기, 전쟁의 주축과 참여층, 동학과 농민전쟁의 관계, 전개과정, 농민전쟁의 성격과 의의 등에 따라 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교과서의 개정 때마다 동학 농민 운동에 대한 용어가 달라지기는 하였으나, 이 논지에서는 2011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8종 교과서를 기준으로 “동학 농민 운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들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여러 사건들을 연결시켜 수업을 진행하면 학습자의 역사의식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다.

둘째, 동학 농민 운동은 여러 사건이 원인과 결과로 서로 연결되어 발생했기 때문에 당시에 발생했던 다양한 사건들에 대한 관련 유물, 유적, 사료 등의 자료가 남아있다.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쟁점을 가지고 토의를 진행할 때 학생들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도움을 줄 자료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동학 농민 운동을 주제로 한 역사 내러티브 수업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먼저 II장에서는 내러티브의 개념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고 내러티브를 역사수업에 적용시켰을 때 어떠한 기대효과를 생각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도록 한다. 그리고 수업을 위해 어떤 자료들을 선정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할 것인지를 서술한다. III장에서는 이러한 내러티브 수업방안에서 동학 농민 운동이란 소재를 가지고 어떤 쟁점들을 선정하여 학생들에게 제시할 것인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쟁점을 선택하는 이유를 설명하여 수업에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논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 수업을 위해 특정 쟁점을 선정하는 이유는 동학 농민 운동의 모든 부분을 내러티브의 요소로 삼을 경우 학생들이 스토리텔링을 하는데 방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IV장에서는 이러한 내러티브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수업모형과 수업상황을 설계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수업대상과 교과서를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업계획안과 학습지도안을 작성한다. 이어서 수업시간에 작성해야 할 활동지를 설명하면서 학생들의 수업을 통해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 서술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수업과정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내러티브가 활용되는 역사수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제안해보고자 한다.

II. 내러티브를 활용한 역사수업

1. 내러티브의 개념과 기대효과

역사수업에서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역사에 대한 흥미를 유지하면서 역사적 사고력을 같이 키울 수 있을가하는 문제이다. 수업은 교육내용을 매개로 교사와 학생이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상호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교사들은 수업시간에 상호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학생들의 능동적 참여를 이끌어 내려고 노력한다. 이와 더불어 학생들이 수업에 쉽게 접근하고 재미가 있으며 동시에 역사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였다.¹¹⁾ 역사수업에서 내러티브를 적용한 수업방법이 학생들에게 제시된 것은 이러한 노력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내러티브를 수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러티브의 정의부터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좁은 의미에서 내러티브를 역사에 적용하는 경우 연대기적 순서로 소재를 조직하여 내용을 단일하고 조리 있는 이야기로 집중시키는 역사 서술 형태를 지칭한다. 즉 “ 과거의 사건에 대해 하나의 중심 주제를 둘러싸고 일정한 구성형식을 갖춘 일련의 이야기”를 말한다.¹²⁾ 최근에는 넓은 의미에서 내러티브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다. 즉, 사건, 등장인물, 배경을 포함한 “이야기”와 이야기를 풀어내는 기교, 기법인 “담론”을 합쳐서 내러티브라고 정의한다.¹³⁾ 이를 역사 내러티브라고 바꾸어 말한다면 역사적인 담론과 이야기가 같이 공존하는 이야기 서술체의 글이라고 할 수 있다.

최호근은 내러티브를 인간의 사고방식과 유형에 따라 전통적 내러티브, 예정적 내러티브, 비판적 내러티브, 발생적 내러티브로 정의하고 실제 역사서술에서도 이 4 개의 내러티브가 모두 사용된다고 이야기했다.¹⁴⁾ 그리고 이러한 4개의 내러티

11) 김한중, 「국사교과서 연구의 최근 동향」, 『한국교육대학교 기성회계 학술연구 보고서』, 2000

12) 양호환, 『역사교육의 입론과 구성』, 책과 함께, 2012

13) 김한중, 「역사수업 도구로서 내러티브의 구성형식과 원리」, 『사회과교육학연구』 3, 1999, 24쪽

14) 최호근, 「내러티브와 역사교육」, 『역사교육』 123, 2013

브가 역사 수업에서 연령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내러티브를 역사수업에 활용할 때는 단순한 일화나 일상적인 대화를 넘어서 무엇인가 담겨 있어야 한다고 기술했다. 그래야만 동일한 소재를 수업에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상반된 이야기가 담길 수 있다는 것을 명시했다.

김한중과 이영호¹⁵⁾는 비판적 역사 읽기와 역사쓰기를 제시하고 내러티브를 역사 수업에 적용할 경우 학생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서술했다. 이들은 우선 학생들에게 교과서, 사료, 이야기 형식을 각각 글로 제시했다. 그리고 학생들은 이 세 가지의 형식 중에 이야기 형식의 글쓰기가 비판적 역사의 서술 형태에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여기서 말하는 비판적이라는 의미는 넓은 의미에서의 비판적 사고, 좁은 의미에서는 “텍스트 해체적 읽기”를 이야기한다. 학생들이 이러한 해체적 읽기를 하고 난 다음 이야기 형식의 글쓰기를 쓸 때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거나 역사적 사건을 다른 의도로 해석하여 서술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영호는 더 나아가 이러한 텍스트 읽기가 학습자가 역사를 이해하는데 수동적인 수용보다 능동적인 참여로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이며, 모든 텍스트는 독자의 새로운 해석을 위하여 열려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내러티브를 활용한 역사수업은 주체적으로 텍스트를 해석하고 이를 비판하는 과정을 동반한다고 설명한다.¹⁶⁾

이처럼 역사 내러티브에서 교과서 혹은 사료를 통한 “해체적 읽기”가 가능하면 학생들 스스로가 역사 수업에서 자신의 역사의식을 성찰하고 비판할 수 있다. 이러한 학생들의 역사의식 성찰은 역사수업에서 “기능적”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는 암기식 수업방식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다면 내러티브가 역사수업으로써 진행될 때 어떤 기대효과를 생각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내러티브는 “비판적 읽기”가 통해 저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내러티브 수업의 핵심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학생들 스스로가 이야기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점이다. 이야기를 만들고자 한다면 교과서나 역사적 사건에 맞는 사료를 읽고 그 사료 속에서 내러티브를 작성한 저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 내러티브에 주목했던 역사학자 중 하나인 헤이든 화이트는 역사학은 설명의

15) 김한중 · 이영호, 「비판적 역사읽기와 역사쓰기」, 『역사교육』 81, 2002

16) 이영호, 「내러티브 양식의 역사서술체제 개발」, 『사회과교육 42(4)』, 2003, 104쪽

학문이 아니라 이해의 학문이라고 파악하였다. 그에 의하면 역사가의 서술은 이야기의 구성과정부터 허구적 요소가 개입되고 이야기 자료의 부재를 메우는 역사가의 상상력이 가미된다고 말한다.¹⁷⁾ 헤이든이 말한 것처럼 대부분의 역사서술은 대부분 저자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고 쉽게 밖으로 드러내지 못하도록 감춰져 있다. 이러한 저자의 생각이 드러나 있지 않는 것을 서브텍스트라고 한다. 아무리 읽기 능력이 탁월하고 역사적 사실에 관한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진 학생도 실제로 서브텍스트에 대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은 문헌에서 서브텍스트를 읽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없는 경우도 있다.¹⁸⁾ 또한 이러한 것을 읽어낼 경험을 해보지 못한 학생들도 있다. 그래서 “비판적 읽기”를 내러티브 수업에 적용, 이를 통해 서브텍스트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내는 것이다. “비판적 읽기”를 통해 서브텍스트를 읽는 경험이 축적된다면 학생들은 학습을 지속시키는데 정서적 흥미를 느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책읽기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동기도 생겨난다.

두 번째로 내러티브를 통해 교과서 혹은 사료에 대해 “비판적 읽기”가 가능하면 역사적인 맥락도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는 수업이 된다. 현재 교육현장에서 역사 수업이 강의식 교육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한국사”에서 학생들이 배워야 할 내용들이 많다는 점이다. 서론에서 이야기한 계열화를 교과서에 적용시키자는 이야기도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내러티브 수업을 진행하면 역사를 배우는데 있어 학생들에게 본질적인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억지로 주입식 교육을 진행하지 않아도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여 자연스럽게 역사의 다양성과 의미를 수용할 수 있다.

세 번째로 내러티브 수업을 진행하면서 텍스트에서 구성형식과 갈등구조를 배울 수 있다. 나아가 이를 통해 서술의 구조를 학생들 스스로가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형태의 수업을 진행한다면 다른 과목을 수업할 때에도 학생들은 스스로가 비판적 이해를 높일 수 있다. 또한 텍스트에서 필요한 지식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이해와 해석 능력도 발전할 수 있다

17) 조지형, 『언어로의 전환과 새로운 지성사』, 오늘의 역사학, 1998

18) 김한중, 이영효, 「비판적 역사 읽기와 역사쓰기」 『역사교육』 81, 9쪽

2. 내러티브 수업을 위한 기본자료 선정

내러티브를 역사수업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떤 내러티브 방법을 사용하여 수업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해야 한다. 선행 연구에선 다양한 내러티브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각기 다른 형태의 수업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선 쟁점을 중심으로 미시적인 관점으로 학생들에게 내러티브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역사를 이해하고 역사적 사고력을 함양하는데 초점을 둔다.

더불어 이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판적 읽기”를 통한 텍스트 해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러티브의 방법론을 제시하기 보다는 어떠한 자료들이 학생들에게 제시되어야 적합한지를 살펴봐야 한다.

우선 가장 기초적인 자료는 역사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 역사교과서의 특징은 과거사실을 바탕으로 저자의 관점에서 구성된 일종의 개인적·사회적 담론이다. 또한 학계의 연구 성과를 사회에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하며, 학생들의 역사인식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 교과서는 설명적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는 역사 담론이며 가치 판단이 크게 들어있지 않다.¹⁹⁾ 그러나 학생들이 교과서에서 비판적 읽기를 통해 역사를 이해하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스토리를 재구성한다면 하나의 중심 주제 안에서 다양한 생각들을 추론할 수 있게 된다. 교사가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구성한 내러티브 수업을 진행한다면 학생들에게 역사수업은 흥미를 느끼게 될 것이다.

역사 교과서 서술은 이야기체의 내러티브와 분석적 설명이 섞여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전자는 역사사건 그 자체의 진행과 결과를 묘사하는 부분이고, 후자는 주로 사건의 의미를 해석, 평가하고 더 크게는 시대의 모습과 구조를 설명하는 부분이다. ²⁰⁾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교과서의 이야기체 내러티브를 통해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분석적 설명을 파악하여 글의 서술에 담긴 관점과 해석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

19) 양호환, 「서술주체와 관점- 역사교과서 읽기와 관련하여」, 『역사교육』 68, 1998

20) 양호환, 『역사교육의 입론과 구성』, 책과 함께, 2012

이러한 두 가지의 서술 구조가 포함되어 있는 교과서를 일차적으로 읽어야만 다른 자료들도 함께 비판적 읽기가 가능하다. 뒤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쟁점을 선정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이유도 학생들이 역사교과서 내의 모든 서술내용을 이야기체 내러티브와 분석적 설명으로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과서에 서 읽어야 할 부분을 선정해 놓으면 이러한 서술 형태를 파악하기 쉽고, 다른 자료를 살펴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선택되어야 할 자료는 교과서상에서 나와 있지 않는 자료들을 선택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자료는 역사수업과 역사교재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자료이다. 기존 교과서에서도 주로 읽기자료나 탐구활동을 위해 자료가 제시되고 있다. 자료 제시는 역사적 사실을 단순히 설명하는 본문 중심의 교과서 서술을 개선하고 역사수업을 풍부하게 만들어 준다. 또한 역사적 사건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키워준다. 최근에는 동학 농민 운동에 대한 연구가 학자들을 통해 다양하게 이뤄지면서 이를 뒷받침할 만한 다른 형태의 자료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또한 보조 교재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이 발간되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자료를 알려주는 경우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에 대한 인과관계를 배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럴 경우 학생들은 많은 양의 자료를 해석하는데 집중하여 오히려 역사를 전체적으로 생각하고 배워야 할 부분에서 역사의 의미가 희석되거나 모르고 지나간다.²¹⁾ 그래서 쟁점을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학생들에게 선정해주되, 내용이 어렵지 않고 간단한 자료들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이해를 돕기 편하도록 영상자료를 제시한다. 동학 농민 운동에 대한 영상자료는 영화와 다큐멘터리가 있다. 그 중 학생들이 수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신뢰할 만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영상자료 중 KBS 『역사저널, 그날』을 선택하여 1차 수업 때 약 5분 정도를 틀어준다.

21) 김한중, 「자료내용의 전달방식에 따른 고등학생의 역사이해」, 『역사교육』125, 2013, 1~2쪽

Ⅲ. 동학 농민 운동의 주요 쟁점

현행 8종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서술된 “동학 농민 운동”이라는 소재는 구제질서의 흐름과 근대국가의 수립이라는 한국사 교육과정안에서 다뤄진다. 그리고 근대국가 수립노력이라는 소주제에서 동학 농민 운동을 비롯한 근대사의 다양한 역사적 사건들이 교과서에 서술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역사 내러티브에 기반을 둔 수업에서 가장 좋은 방향은 바로 학생들이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해당 주제에 대한 관련 자료를 선택하고 그 가치와 한계를 인식하여 글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러티브 수업을 잘 진행하면 학생들은 학습을 통해 역사를 이해하고 수업에 만족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소주제에서 역사적 사건들을 선택하는 과정부터 어렵다고 느낄 수 있다. 현장에서도 학생과 상호작용으로 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는 교사의 경우,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힘들다. 이와 더불어 각 과목마다 수업시간이 한정적이라는 점과 학생들에게 교과서상에 제공되는 읽기자료가 제한적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앞에 제시되었던 문제들을 고려하여 교사가 앞에 언급한 동학 농민 운동의 쟁점을 선정하고 그에 관련된 자료들을 선택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고에선 세 개의 쟁점을 선정하고 왜 이 쟁점이 중요한지를 설명한다. 그런 다음 현행 8종 한국사 고등학교 교과서 분석을 통해 쟁점과 관련된 부분을 파악하고 어떻게 서술했는지 알아본다. 그리고 이 쟁점들을 통해 학생들에게 어떻게 학습을 진행할 것인지를 다루고자 한다.

1. 폐정개혁안과 갑오개혁

첫째, 현행 교과서에서 제시되고 있는 “폐정개혁안”을 갑오개혁안과 연결시켜 볼 때 학생들이 역사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폐정개혁안도 동학 농민 운동에 참가했던 농민들이 정부에 직접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고 개혁을 주장한 사료이다. 더욱이 이 사료가 중요한 이유는 농민들의 요구가 반영되어 갑오개혁의 정책에 일부 적용, 시행되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고등학교 한국사 8종교과서에서도 폐정개혁안 사료로서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각각 오지영의 『동학사 12개조』와 『전봉준 공초 14개조』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오지영의 『동학사 12개조』에는 역사학계에서 자료의 정확성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었다.

이전 교육과정의 교과서에는 폐정개혁안에 대한 기본적인 사료를 오지영의 『동학사』에 나와 있는 집강소 폐정개혁안 12개조를 별 문제없이 실었다. 그러나 요즘 학계에서는 동학 농민 운동이 발생한지 한참 뒤에 『동학사』가 쓰여졌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다. 유영익은 “진보성을 강조하는 학자들이 인용하는 오지영의 역사소설 『동학사』는 일종의 야사로 글자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신빙성이 낮은 사료”²²⁾라고 말한다. 반면 최근에는 오지영의 12조가 기술된 다른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폐정개혁안에 대한 실재성을 긍정하는 학자들도 있다. 박맹수는 “『동학사』에서 격문과 같은 일부 내용의 오류만이 존재하지만 모든 내용을 허구로 볼 수는 없다”라고 분석하였다²³⁾. 배항섭은 “농민군의 행동준칙들의 일부 조항에서 폐정개혁안에 나타났던 내용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논문에서 이야기한다.²⁴⁾ 정창렬의 경우 북한학계와 새로운 사료들을 바탕으로 폐정개혁안 12개조에 대한 객관적인 정확성을 구체화시켰다.²⁵⁾ 또한 선행 연구들도 이러한 연관성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²⁶⁾

이처럼 사료에 대한 논란이 계속 존재했기 때문에 현 김정체제 교과서에선 오지영의 『동학사』의 폐정개혁안 12개조의 사료채택이 일정하지 않다. 리베르는 오지영의 『동학사 12개조』를 인용하였고, 지학사, 동아, 천재, 미래엔에선 『전봉준 공초 14개조』를 선택하였다. 특이하게 교학사는 『동학사 12개조』와 『전봉

22) 유영익, 『동학농민봉기와 갑오경장』, 일조각, 1998

23) 박맹수, 「매천 황현의 동학농민군과 일본군에 대한 인식」, 『한국사연구』 2015.

24) 배항섭, 「동학농민전쟁에 대한 역사교과서 서술 내용의 새로운 모색」, 『역사와 담론』, 2012.

25) 정창렬, 『동학농민혁명의 동아시아적인 의미』, 동학 농민 혁명 기념사업회, 2002

26) 신용하, 『한국 근대사와 사회변동』, 문학과 지성사, 1980 ; 김경순, 「갑오농민전쟁에 관한 연구」, 이대박사학위, 1987 ; 도면희, 「근대=자본주의사회의 기점으로서의 갑오개혁」, 『역사와 현실』 9, 1993

준공초 14개조』의 폐정개혁안을 인용한 정교의 『대한계년사』를 같이 실었다.

각 교과서에서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출처가 명확한 사료를 쓰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동학 농민 운동과 갑오개혁의 연관성을 이해하고 동학 농민 운동의 전체적인 역사적 흐름을 배워야 하는 과정도 학생들에게 중요하다. 그래서 교학사의 경우처럼 폐정개혁안에 대한 두 개의 각기 다른 사료를 제시하고 학생들에게 이를 비교해보라는 교과서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스스로가 각기 다른 사료를 비교, 분석하면서 동학 농민 운동과 갑오개혁의 연관성을 이해하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본 논고에서는 첫 번째 쟁점으로 현행 8종 한국사 교과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두 개의 폐정개혁안을 비교하는 사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이 두 사료에서 제시된 개혁안들을 분석하여 농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회변화가 공통적으로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앞서 살펴본 사회변화에 대한 농민들의 요구가 실제로 갑오개혁에서 사회적인 법제도로 적용, 실행되었는지를 교과서를 통해 확인해본다. 그래서 동학 농민 운동과 갑오개혁의 인과관계를 학생들이 이러한 수업과정을 거쳐 파악하도록 한다.

2. 청일전쟁의 원인과 조선인들의 인식과 반응

둘째, 청일전쟁이 왜 발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청일전쟁에 대해서 당시 조선인들의 인식과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쟁점으로 선정한다. 당시 청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 후 조선정부는 근대화를 위한 개혁들을 자주적으로 실행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 전쟁으로 제 2차 동학 농민 운동이 발생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동학 농민 운동의 전체적인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알아두어야 할 역사적 사건이다.

우선 현행 8종의 교과서에서는 청일전쟁의 발생 원인에 대해 두 가지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첫 번째 관점은 바로 조선의 조정이 동학 농민 운동을 진압하고자 청에 파병을 요청했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는 리베르를 뺀 나머지 교과서

가 동학 농민 운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외세의 힘을 빌려 청에 파병을 요청했다고 서술되었다.

두 번째 관점은 청일전쟁 당시 청과 일본의 군대가 조선에 어떤 과정을 거쳐 들어 왔는지를 서술한 부분이다. 미래엔은 조선의 지리적인 위치에 따라 청은 “동쪽 울타리”, 일본은 “이익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조선을 차지하기 위한 기회를 노려보고 있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두산동아와 교학사는 청은 텐진 조약을 내세워 군대파병을, 일본은 거류민의 보호를 명분으로 군대를 파견했다고 서술했다.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리베르는 청은 조선의 요청으로 군대를 보냈고 일본은 텐진 조약을 구실로 조선에 군대를 파병한다고 서술했다. 특히 미래엔은 청일전쟁의 결과에 대해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국제질서가 해체되었다. 청은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한 반면, 일본은 중국에서 서양 열강과 같은 지위를 얻으며 제국주의 대열에 합류하였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처럼 청일전쟁의 발생 원인을 현행 8종 교과서에선 동학 농민 운동의 진압을 위해 외세의 힘을 빌리고자 했던 지배층과 조선을 둘러싼 청과 일본의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발생했다고 서술한다.

그러나 현행 8종의 교과서에서 청일전쟁으로 바라보는 조선인들의 인식과 반응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서술이 미비하다. 다만 경북궁 점령으로 인해 일본에 대한 반감이 생겨났고 뒤이어 농민군을 토벌하기 위해 일본군대와 관군이 남하한다는 소식에 제 2차 동학 농민 운동이 일어났다고 하는 동학농민군의 대응만이 인해 조선 내에서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었는지는 서술하지 않았다. 한국사 8종의 교과서에선 청일전쟁의 발생 원인과 과정, 그리고 결과를 이야기한 뒤 이후 2차 동학 농민 운동이 일어났다는 흐름으로 교과서의 서술이 진행된다.

그러나 당시 청일전쟁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것은 바로 동학운동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전쟁을 겪어야했던 조선 내부의 농민과 하층민이었다. 더욱이 경북궁을 점령한 일본군에 대해 농민층과 하층민의 반응은 적대적이었다. 또한 일부 지역의 향반, 부민 층이나 일부 재지 세력들도 경북궁 점령과 친일개화정권의 등장을 보면서 일본을 몰아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²⁷⁾ 반대로 동학교도들

이 기존 질서를 무너트리고 자신들을 위협한다고 생각했던 양반 지배층들은 일본이나 청의 군대가 들어오는 것보다 동학 농민 운동을 진압하는 것이 우선이었다.²⁸⁾

그렇기 때문에 제 2차 동학 농민 운동에선 청일전쟁에 대한 매우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조선의 상황이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즉, “척왜양”이라는 구호를 더욱 강력하게 외치면서 양반층의 참여를 더욱 적극 유도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었다.²⁹⁾ 반대로 동학 농민 운동에 적대적인 양반, 향리 계층은 전쟁에 파병된 일본군과 함께 동학농민군을 토벌하여 기본 질서를 다시 찾으려 했다. 이와 같이 당시의 혼란된 정치적,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 교사의 세부적이 설명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강의식 진행으로 암기 위주의 역사학습이 되다 보니 학생들은 교과서의 서술 내용만을 읽고 청일전쟁이 왜 중요한지 파악하기 힘들다.

그래서 두 번째 쟁점으로 청일전쟁이 일어난 원인을 교과서 비판적 읽기를 통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토의를 진행한다. 그리고 교과서에서 나와 있지 않은 청일전쟁 당시의 사료를 통해 각 신분계층이 청나라와 일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활동지를 통해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당시의 가상의 인물로 내러티브 글쓰기를 하면서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어떠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3. 동학농민군과 민보군의 갈등

마지막으로 동학 농민 운동에 대한 쟁점은 동학농민군과 민보군의 갈등이 왜 발생했고 그로 인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살펴보는 것을 쟁점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교과서에서 당시의 조선내부에서 신분간의 갈등이 어떠했는지 알아봐

27) 정진영, 「1984년 농민전쟁기 향촌지배층의 동향」, 『1894년 농민전쟁연구 5』, 역사비평사, 2003

28) 김희영, 「어느 서양인의 눈에 비친 소래마을의 동학농민전쟁」, 『동학연구』 28, 2010 ; 『동학농민혁명의 지역적 전개과 사회활동』,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새길, 1995 ; 최규진, 「청일전쟁기 지식인의 국제정서 인식과 세계관」, 『아시아문화연구』26, 2012

29) 앞의 논문, 1993, 196쪽

야 한다.

공통적으로 교과서에선 조선정부의 무능과 권력층의 수탈로 동학 농민 운동이 발생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교학사는 여기에 덧붙여 “지배층의 압제가 심하였다”라고 서술하고 있고 천재교육은 경우 “삼정의 문란으로 인해 집권세력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동학 농민 운동의 성격에 대해서 “반봉건”이라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렇지만 동학 농민 운동이 진압되는 과정은 이전에 발생했던 농민봉기와는 다른 차원의 신분 갈등이 존재한다. 바로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언급한 것처럼 양반이 스스로 민보군을 조직하고 오히려 일본세력과 합세, 이후 동학 농민 운동을 토벌하는데 앞장섰다는 점이다.

민보군에 대한 이전 연구들은 동학 농민 운동에서 민보군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단순히 국가와 농민군과의 갈등으로만 보았다. 미래엔에서도 이전 연구들처럼 일본군과 정부군이 농민군을 토벌하면서 학살을 자행했다고 서술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부터 농민운동과 지역 재지사족간의 갈등관계를 연구한 논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³⁰⁾ 특히 민보군에 참여했던 지배층들이 각 지역에서 어떻게 동학군에 대응했는지 살펴보는 연구들도 나왔다.³¹⁾ 이로 인해 2차 동학 농민 운동 전후에 신분제적 갈등이 지역 사회구조에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주목하였다. 신영우는 민보군의 결성시기와 주도층은 지역에 따라 다양했지만 보수적인 지역에서는 향리가 중심이 되었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전직관료와 유학층이 중심에 되어 민보군을 결성했다고 이야기한다.³²⁾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도 이러한 연구들이 반영되어 미래엔을 제외한 나머지 교과서에서 민보군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또한 이들이 관군 혹은 일본군과 합세하여 동학농민군을 토벌했다고 이야기한다.

30) 최승희, 「書院(儒林)勢력의 東學 排斥運動 小考 : 1863년도 東學排斥通文 分析」, 한우근박사정년기념사학논총, 1981 ; 이이화, 「동학농민전쟁에서 나타난 유림의 대응」, 『민족사의 전개와 그 문화(하)』, 1990

31) 신영우, 「1894년 영남 상주의 농민군과 소모영」, 동방학지 51, 1986 ; 신영우, 「1894년 영남 서북부지방의 농민군 지도자의 신분」, 『학림』10, 1988 ; 김준형, 「서부경남지역의 동학군 봉기와 지배층의 대응」, 『경상사학』 7,8집, 1992

32) 신영우, 「1894년 영남의 동학농민군과 동남부 일대의 상황」, 『동학학보』 30, 2014 ; 「내포 일대의 갑오년 상황과 동학농민군의 봉기」, 『동학학보』 29, 2013 ; 「1894년 고창지역 동학농민군의 진압과 민보군」, 『동학학보』 26, 2012

이처럼 동학 농민 운동이 발생했던 지방사회에선 이미 오래전부터 신분제적 갈등이 존재했었고, 이것이 민보군의 출현과 더불어 동학 농민 운동을 탄압하면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이러한 신분제 문제에 대한 갈등과 그에 따른 논제가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쟁점으로 삼아 수업에 적용시켜야 한다. 동학 농민 운동에서 신분제에 대한 개선을 폐정개혁안을 통해 이야기했다. 이후 갑오개혁으로 “신분제”에 대한 폐지가 법제적으로 이뤄졌다. 그럼에도 조선에서 신분적 질서 관계는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었고, 동학 농민 운동이 발생했던 와중에도 이러한 신분계층간의 갈등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학농민운동 당시의 신분갈등이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한 역사적 맥락을 학생들이 모른다면 교과서에서 서술된 동학 농민 운동의 의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동학농민군과 민보군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고 활동지에 사료를 제시하여 당시의 신분갈등을 확인하다. 그리고 토의를 통해 동학농민운동의 과정과 결과를 상기하면서 그 후 역사적인 맥락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내러티브 글쓰기를 진행하고자 한다.

IV. 내러티브 수업 구성

1. 수업모형 및 상황설계

교사는 학생들의 지식과 태도를 고려하여 역사교과서의 내용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상해야 한다. 그리고 수업상황을 설정하고 가상시연을 통해 실제 수업의 전개과정과 일치시켜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수업모형 및 수업상황을 설계한다. 수업모형이란 학습을 위한 수업과정을 어떻게 진행할지를 도식으로 체계화한 것이고 수업상황은 그러한 체계화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만들기 전에 간략한 틀로 만들고 가상 시연을 통해 수업을 조정하기 위한 과정이다.

우선 수업모형을 살펴보자, 역사적 사고력을 함양하기 위해 많은 연구자들은 수업 모형으로 조사발표 수업모형, 역할놀이 수업모형, 탐구식 수업모형, 추체험 수업모형, 사료 탐구형 수업 모형 등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하였다. 조사발표 수업모형은 학습자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역할놀이 수업모형은 한 그룹의 학습자들이 역사 속 인물을 직접 연기하고 이를 실제 사건과 대비시켜 역사를 이해하는 과정이다. 탐구식 수업모형은 사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의 수업모형이고 추체험 수업모형은 역사적인 자료를 학습자 스스로 분석하여 이를 감정이입으로 판단하고 신문, 연극 등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사료 탐구형 수업모형은 사료분석을 통해 당시의 시대상을 파악하고 이를 분석하여 역사적 사실 내용을 살펴보는 모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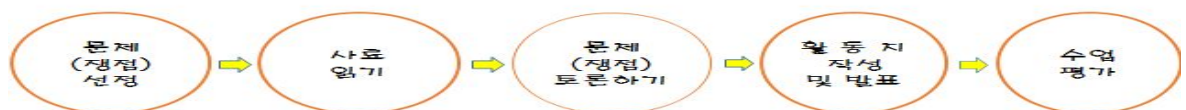
이를 같이 다양한 방법의 수업 모형 중에서 이 논문에서는 송춘영³³⁾이 제시한 사료 탐구형 분시 수업 모형을 바탕으로 감정 이입적 상황을 일부 적용한 수업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송춘영이 제시한 사료 탐구형 수업모형은 각 단계마다 수

33) 송춘영 외, 「역사적 사고력을 기르기 위한 사료 활용방안」, 『역사교육의 이론과 방법』, 삼지원, 1997, 377쪽

업방법을 설정하여 학생들이 수업내용을 순차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만든다. 교사는 각 단계마다 수업목표를 설정해 주고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역사적 내용에 접근한다. 학생들은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역사적 사실들을 사료를 통해 알아가면서 더 많은 지식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역사연구 방법을 체득함으로써 이 단계가 완성되면 학생들의 역사의식의 성장은 물론 사료에 대한 탐구능력도 키울 수 있다. 여기에 네 번째 단계에서는 역사적 사건에 대해 감정 이입을 할 수 있는 내러티브 글쓰기를 통해 흥미를 유발시킨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최종적으로 수업을 평가함으로써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인과적 맥락을 사고할 수 있다.

아래 《그림 1》의 내러티브 수업모형은 동학농민운동의 쟁점을 내러티브 수업에 적용시켰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전개를 간략한 도식으로 만든 것이다. 먼저 총 5단계의 수업과정을 제시할 수 있다. 1단계는 교사는 동학농민운동의 쟁점을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학생들은 각 모듈별로 쟁점을 선정한다. 두 번째 단계는 교과서의 “비판적 읽기”를 2번 진행한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첫 번째는 전체 내용을, 두 번째는 동학농민운동의 3가지 쟁점을 제시하면서 교과서를 비판적으로 읽도록 유도한다. 비판적 읽기가 끝나면 3단계는 토론을 통해 쟁점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시도한다. 이를 통해 비판적 읽기에서 파악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토의를 통해 공유할 수 있다. 4번째 단계는 공유된 토의의 내용을 정리하면 활동지에 이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고 발표한다. 마지막 단계로 교사는 학생이 작성한 활동지를 같이 확인하며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그림 1》 동학 농민 운동의 쟁점에 대한 내러티브 수업모형



다음으로 이러한 수업 모형에 따라 수업상황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를 살펴본다.

본 논문에선 수업에서 역사에 대한 흥미를 지속시킬 수 있으면서 역사적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김정찬³⁴⁾이 기존의 연구들의 사례들을 정리하여 제시한 11개의 수업 상황에서 선택하고자 한다. 그는 9개의 설명방식과 2개의 비판적이 이해의 수업상황을 설명했는데 그 중 비판적 이해를 위해 복합적인 과정을 추구하는 2개의 수업 상황 중 한 개인 “내러티브를 작성하여 ‘doing history’를 경험하기”를 선택한다. 이 수업진행은 사료분석을 통해 학생들에게 역사적 감정이입을 통한 내러티브 글쓰기를 작성해 봄으로써 역사적인 상황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사료에 대한 탐구능력과 작성한 내용에 대한 평가도 진행하여 글쓰기를 작성했을 때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봐야 한다.

《표 1》의 동학농민운동의 쟁점에 대한 내러티브 수업상황은 동학 농민 운동의 쟁점을 내러티브 수업에 적용시켰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수업진행 내용을 표로 작성했다. 교사는 수업상황을 세부적으로 설정하기 전에 수업을 할 대상과 수업진행 시 필요한 교과서를 선정하고 수업진행을 설계한다. 수업대상은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역사적 사고력의 하위범주인 연대기 파악력과 역사의식이 어느 정도 발달한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³⁵⁾으로 선정한다. 교과서는 현행 8종 고등학교 한국사 중에서 가장 채택률이 높고 논란이 적은³⁶⁾ 미래엔 교과서를 선택한다.

다음으로 수업진행은 각 단계마다 수업절차 - 수업진행 - 기대효과 순으로 작성한다. 수업절차는 수업모형에서 설정한 각 단계별로 진행한다. 그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것인지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에 따른 기대효과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한다.

우선 사전에 학생들에게는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쟁점을 언급해 주고 시작하도록 한다. 학생들에게 3가지 쟁점을 제시하면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알려 주고 모둠별 수업을 위한 준비를 지시한다. 다만 쟁점을 선정한 이유를 말할 때

34) 김정찬, 「내러티브적 역사인식과 역사교육」, 『청림사학』7, 2013

35) 위의 책, 350쪽

36) 2014.01.10. JTBC “미래엔 한국사 교과서 채택 1위, 이념 논란 적다”

는 선입견이 들지 않도록 간략하게 설명한다.

다음으로 교과서를 총 2번 읽도록 지도한다. 첫 번째 교과서 읽기를 통해 학생들이 서브텍스트 즉 교과서 속에 들어있는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전반적인 담론들이 어떻게 파악되는지 알면 학생들은 교사가 알려준 쟁점을 활동지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모듈별로 토의를 진행한다. 이때 토의를 통해 사실탐구와 의미탐구를 찾도록 한다. 사실 탐구는 역사적 자료를 수집하여 역사적 증거의 근원을 밝히고 하나의 사실을 내적, 외적 비판을 거쳐 자신의 역사담론으로 완성해가는 것이고, 의미탐구는 사실탐구를 통해 밝혀진 역사적 사실을 연대적으로 파악하고 추론하여 역사적 사건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후에 토론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살들을 정리하도록 한다. 각 팀에서 교사는 활동지를 배부하고 작성하도록 유도한다. 학생들은 사전에 교사가 공지한 쟁점을 중심으로 조사해온 자료를 취합하여 토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작성한다.

이 과정이 끝나면 각 조별마다 활동지 작성을 발표하고 궁금한 점을 질문하게 한다. 그런 다음 내러티브 글쓰기를 작성하여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교사는 모든 과정을 학생들이 마치면 동학농민운동의 내용정리를 통해 사료이해 능력 향상과 역사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수업이 된다.

《표 1》 동학농민운동의 쟁점에 대한 내러티브 수업상황

| 수업절차 | 수업목표 | 기대효과 |
|--------------------|---|-----------------------------|
| 1.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쟁점제시 | ○ 쟁점 선정의 이유제시 | - 문제나 목표 파악 - 학습자의 흥미 유발 |
| 2. 자료 비판적 읽기 | ○ 미래엔 교과서 192~199 1) 역사적 맥락을 파악하며 전 페이지 읽기 2) 3가지 쟁점을 생각하면서 교과서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 - 텍스트 해체를 통해 역사적 탐구력 발달 |
| 3. 쟁점에 대해 토론하기 | 1) 폐정개혁안과 갑오개혁의 | - 사실탐구와 의미탐구 파악 |

| | | |
|---|---|--------------------------------|
| 1) 폐정개혁과 갑오개혁의 비교 2) 청일전쟁의 발생원인과 조선인들의 대응과 인식 3) 동학농민군과 민보군의 갈등 | 사료비교를 통해 두 역사적 사건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2) 청일전쟁의 발생원인과 당시 조선인들의 대응과 인식이 어떠했을지 파악하기 3) 당시의 사료들을 읽어보면 동학농민군과 민보군의 갈등이 어떠했을지 파악하기 | |
| 4. 활동지 작성 및 발표 | ○ 역사가가 되어 역사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내러티브 글 쓰기 | - 감정 이입적 이해를 통해 스스로의 역사적 담론 성찰 |
| 5. 수업평가 | ○ 교사가 최종정리를 하면서 수업을 마무리하기 | - 평가를 통한 학습자의 자기 반성과 역사의식 성장 |

이 수업모형의 형태로 내러티브 수업을 진행할 때는 교사는 아래와 같이 사안들을 중시하면서 학생들을 지도해야 한다. 첫째로 교과서를 기준으로 학습지도안, 그리고 활동지의 상호작용이 충분히 일어나야 하며, 둘째, 수업이 끝난 후에 학생들이 스스로가 학습내용의 정리와 역사 내용의 구조화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기 주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자료를 학생들이 선택하게 하여 수업구성을 풍부하게 만들고 흥미를 계속해서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학습계획 및 학습지도안

다음으로 이러한 수업 모형과 수업진행 설계에 따라 학습계획 및 학습지도안을 구성해야 한다.

학습계획은 학습방법과 학습 내용 및 주의사항으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다. 각 차시마다 교사는 수업할 내용을 간략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지도안은 각 단원 교수-학습의 절차를 단위 시간별로 미리 계획하여 실제 수업을 원만하게 이끌어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그래서 각 단위 수업을 대상으로 단계, 학습 내용, 주의사항등을 계획하여 서술해 놓은 것이다. 그런 의미로 학습지도안은 일종의 시나리오이다.³⁷⁾

이 내러티브 수업에서 학습계획안을 짜는 이유도 시간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되도록 짧은 시간 안에 학습방법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 차시마다 학습방법을 구상하여 학생들이 이 수업을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지 사전에 점검한다. 그런 다음 각 진행 순서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해야 할 행동 및 지시사항을 써 놓는다. 이 학습계획안을 통해 교사는 수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수정해야 할 상황을 미리 점검할 수 있고, 환경적인 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다음 《표 2》는 이런 과정을 요약해 놓은 것이다.

《표 2》 학습계획안

| 단계 | 학습내용 | 주의사항 |
|----------------------|--|---|
| 1차시 (강의 및 모둠식 수업) | 1. 동학 농민 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학습 1) 1894년에 벌어졌던 1.2차 동학 농민 운동. 청일전쟁, 갑오개혁의 진행 과정을 판서함 2) 내용은 되도록 간략하게 적음. 2. 미래엔 교과서 192~199쪽까지 읽음. | - 산만해지지 않도록 주의시키기 - 첫 번째는 전체적으로 읽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넘어가기 - 두 번째는 쟁점을 중심으로 읽기, 쟁점에 대해서 읽을 부분을 알려주기 - 각 모둠조는 토의를 진행해야 함 |

37) 전선영 외, 『역사교육의 이해』, 2001, 삼지원

| | | |
|---|---|---|
| | <p>- 전체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하면서 읽음</p> <p>3. 판서로 쟁점이 될 부분과 읽어야 할 페이지를 적고 읽도록 지도</p> <p>1) 쟁점 1: 196, 198쪽 2) 쟁점 2: 192, 193쪽 3) 쟁점 3: 196, 197쪽</p> <p>4. 활동지를 나눠주고 읽을 내용을 중심으로 토의 진행</p> <p>5. 토의 내용을 종합해서 활동지를 작성함</p> | <p>으로써 조장 한명과 서기 한명을 뽑도록 함</p> <p>- 교사는 돌아다니면서 토의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지도함</p> |
| <p style="text-align: center;">2차시 (작성 및 발표수업)</p> | <p>1. 활동지 발표를 함</p> <p>1) 준비하는 동안 전체 학생들에게 활동지 작성에 대한 생각을 간략하게 물어봄</p> <p>2) 각자 순서를 어떻게 정할건지 선정하여 진행함</p> <p>2. 각 조별로 발표하되, 발표 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함.</p> <p>1) 이야기가 쟁점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알아봄</p> <p>2) 질문을 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수업을 유연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질문을 준비함</p> <p>3. 학생들과 같이 수업내용을 정리하면서 이에 대한 총평을 진행함</p> <p>1)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가?</p> <p>2) 새로운 역사사실을 알았는가?</p> <p>3) 이야기를 통해 흥미를 이끌어갈 수 있는가?</p> | <p>- 다른 조가 발표할 때는 잡답을 하지 않도록 돌아다니며 주의시킴</p> <p>- 질문을 통해 학생들이 동학 농민 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감</p> <p>- 최종적으로 평가를 통해 학습자들이 쟁점을 통해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었는지를 최종 확인</p> |

| | | |
|--|--------------------------|--|
| | 4) 역사사실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했는가? | |
|--|--------------------------|--|

다음으로 학습지도안은 두 번에 수업시수를 고려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표 3》의 내러티브 교수 - 학습 지도안 1차시에선 동학 농민 운동이란 소재에 환기시키고 학생들이 모둠조를 만드는 동안 주의할 점을 알려준다. 또한 활동지가 수행평가에 들어갈 것이라는 미리 공지를 함으로써 학생들이 활동지 작성 시에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수업시간에 움직이면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조별로 앉도록 지시한다. 교사는 우선 동학 농민 운동에 대한 영상을 보여주면서 수업 내용을 준비시키면 된다. 학생들은 영상을 통해 배울 내용을 상기한다. 다음으로 교사는 활동 1에서 간략한 역사적 사실을 판서를 통해 알려준다. 판서의 내용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재구성하고 많은 양을 알려 주기보다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개괄적인 서술이어야 한다.

판서가 다 끝나면 여분의 시간을 제공하여 노트필기를 마무리 시킨 다음 활동 2에서 학생들에게 미래엔 교과서의 전체 내용을 한번 읽어 판서한 내용을 상기하고 전체적인 상황들을 파악하도록 한다. 학생들이 전체읽기를 하는 동안 교사는 두 가지 행동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우선 교과서에서 이해하기 힘든 역사 용어에 대한 것들은 칠판에 적어 학생들이 전체읽기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제폭구민이나 보국안민은 한자이므로 이해가 어려운 학생이 있을 수 있으니 풀이해서 칠판에 적어주는 것이 좋다. 정한론과 이익선은 일본에서 주장한 용어이므로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적어놓는다.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읽기를 다 마친 학생들이 주의가 산만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체읽기가 끝나면 교사는 활동 3에서 토론을 진행할 3가지 쟁점을 칠판에 적어 놓고 학생들이 교과서를 다시 읽으면서 이러한 쟁점들이 어떻게 서술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교과서 읽기가 두 번 모두 끝나면 활동 4에선 각 조별마다 칠판에 적힌 쟁점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한다. 다만 2조마다 같은 쟁점을 고를 수 있도록 유도한다. 모둠조가 쟁점을 선정하면 교사는 활동지를 나누어 주고 토의를 진행하게 한다. 학생들은 활동지를 보면서 자신들이 찾은 교과서의 내용과 활동지

에 나와 있는 사료들을 비교하고 이를 토의하도록 한다. 이때 학생들이 유의할 점은 토의 내용들이 후에 활동지 작성에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시키면 된다. 또한 활동지 문항 3번 작성 전에 예시문을 보여줘서 활동지 작성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교사는 이때 모든 시수가 끝나기 전에 활동지의 1번과 2번이 작성되도록 알려준다. 교사는 각 활동지의 3번은 다음 시수가 시작되기 전까지 각 모듈별로 작성하도록 공지한다. 학생들은 2차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활동지 작성을 완료한다.

《표 4》의 내러티브 교수- 학습 지도안 2차시에 진행될 수업내용은 활동지가 모듈별로 다 작성된 상태에서 시작한다. 각 모듈 조에서 대표가 나와 발표 순서를 정한다. 순서를 정하는 동안 교사는 학생들의 주의를 집중시킬 점 읽기자료를 나눠주고 가볍게 각자 읽어보도록 시킨다.

활동 1에서 각 모듈조는 순서대로 각자 자신들의 조가 작성한 활동지를 발표한다. 발표한 조는 글 쓴 내용을 발표하기 전에 우선 왜 이 쟁점을 선택했는지 말한다. 그리고 토의를 통해 이 쟁점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간략하게 설명한다. 각 조가 발표할 때마다 다른 조는 학생들이 발표한 내용을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점을 적어놓는다. 활동 2에선 각 조의 발표가 끝나면 교사와 해당 조에 질문사항을 물어본다. 그 조가 대답을 어려워하거나 관련 없는 내용을 이야기하면 교사가 중간에 개입하여 이야기를 덧붙여 주도록 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학생들이 알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도록 한다.

활동 3에선 최종적으로 교사가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정리를 통해 학생들과 같이 이야기해보는 것이다. 또한 발표를 할 때 미처 정리하지 못한 빠진 부분들을 마무리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활동지를 제출하여 수행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총 2차시의 수업을 마치도록 한다.

《표 3》 동학 농민 운동 내러티브 교수-학습 지도안 1차시(50분)

| | | | | | |
|------|---|---|---|---|-----------|
| 교과명 | 한국사 | 대상 | 고 1 | 지도교사 | 주정민 |
| 대단원 | 국제질서의 변동과 근대 국가 수립운동 | 차시 | 1/2 | 장소 | 미정 |
| 소단원 | 동학 농민 운동,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 | 학습모형 | 강의식 수업 |
| 학습목표 | 1. 동학 농민 운동이 발생한 배경과 그 과정,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2. 토의를 통해 쟁점에 대한 내용을 말할 수 있다. | | | | |
| 준비물 | 교사 | | | 학생 | |
| | 지도안, 활동지, 판서도구, 읽기자료, 영상자료 | | | 교과서, 활동지, 노트, 필기도구, 읽기자료 | |
| 학습단계 | 교수-학습활동 | | | 자료 및 유의점 | 시간 (분) |
| | 교사 | | 학생 | | |
| 도입 | 인사 및 전시 학습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 및 출석 점검. ▶ 전시 학습 내용 확인하기 ▶ 활동지 배부하기 ▶ 활동지 수행평가 공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하기 - 전 시간 배운 내용 상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지가 수행평가에 들어갈 것이라고 공지한다. | 2 |
| | 조 구 성 하 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둠 만들기 (5명씩 6개조) <div style="display: flex; flex-wrap: wrap;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30px; height: 3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margin: 5px;">1</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30px; height: 3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margin: 5px;">2</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30px; height: 3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margin: 5px;">3</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flex-wrap: wrap;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margin-to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30px; height: 3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margin: 5px;">4</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30px; height: 3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margin: 5px;">5</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30px; height: 3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margin: 5px;">6</div> </div>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 만들어 앉기 - 활동지에 모둠 조 쓰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너무 친한 친구끼리 만들지 않도록 한다. ○ 토의를 진행하기 위해 각 조마다 조장 한 명과 서기 한 명을 지정한다. | 1 |

| 학습단계 | 교수-학습활동 | | 지도상의 유의사항 | 시간 (분) | |
|------|----------|--|---|---|----|
| | 교사 | 학생 | | | |
| | 동기 유발 | <p>▶ KBS 『역사저널 그날』 E85 “났네 냐네, 난리가 났어” (동학 농민 운동) 중 일부를 편집해서 보여준다. 38:00-39:00:</p> | <p>- 영상을 보고 오늘 배울 내용을 알아둔다.</p> | <p>○ 영 상 을 편 집 하 여 보여준다.</p> | 5 |
| | 영상 정리 | <p>▶ 영상 속의 내용을 정리한다.</p> | <p>※ 의문 1. 왜 지역 양반들은 일본군, 관군과 함께 동학 농민군을 탄압했을까?</p> | | 1 |
| | 수업 전개 안내 | <p>▶ 오늘의 학습 내용 확인 전개: 수업목표를 제시한다. 학습할 내용을 제시한다. 활동 1: 수업내용 판서하기 활동 2: 교과서 전체적으로 읽기 활동 3: 쟁점을 바탕으로 교과서 다시 읽기 활동 4: 토의를 통해 활동지 작성하기</p> | | | 1 |
| | 활동 1. | <p>▶ 내용 판서하기</p> <p>1. 폐정개혁안과 갑오개혁: 사료를 보고 비교해보기, 당시의 역사적 배경 살펴보기 2. 청일전쟁에 대한 과정: 청일전쟁의 발생원인, 전쟁당시 조선의 상황. 진행과정 및 결과 3. 동학 농민 운동 당시의 신분제, 계층 간의 갈등: 개항 이후 경제적인 격차에 따른 신분제 재편. 새로운 신분질서 요구, 지역사회에서의 갈등(민보군 출현)</p> | <p>- 판서 내용을 노트에 적는다.</p> | <p>○ 교과서를 읽을 때 선입견이 생기지 않도록 내용은 교과서 중심내용으로 판서 ○ 일반적인 사실에는 흰색 분필을, 인물, 사건 등의 공식적인 언어는 다른 색으로 표시한다.</p> | 10 |

| 학습단계 | | 교수- 학습활동 | | 자료 및 유의점 | 시간(분) |
|------|---------|---|---|--|-----------|
| | | 교사 | 학생 | | |
| 전개 | 활동 2 | <p>▶ 교과서 읽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서의 내용을 읽도록 한다. - 어려운 부분이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줄을 쳐서 표시하도록 안내한다. - 돌아다니면서 주의가 산만해지지 않도록 정돈한다. - 용어에 대한 것을 이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폭구민: 포악한 것을 물리치고 백성을 구함 · 보국안민: 나라일을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함 · 정한론: 예도 막부 말기에서 메이지 초기에 등장한 조선침략론 (대표적 인물: 요시다 쇼인) · 이익선: 주권선의 안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구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서를 읽어본다. ※ 미래엔 교과서 192-199쪽 읽기 -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려운 용어 부분은 줄을 쳐서 표시한다. | | 8 |
| | 활동 3 | <p>▶ 쟁점을 제시해주고 교과서 다시 읽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정개혁안과 갑오개혁의 사료비교 2. 청일전쟁의 발생원인과 조선의 상황 살펴보기 3. 동학 농민 운동과 신분층의 갈등 찾아보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칠판에 적힌 쟁점을 읽어본다. - 본인이 줄친 내용과 비교하면서 생각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아다니면서 집중할 수 있도록 살펴본다. | 7 |

| 학습단계 | | 교수-학습활동 | | 자료 및 유의점 | 시간 (분) |
|---------|-----------------|---|--|--|--------|
| | | 교사 | 학생 | | |
| | 활동 4. (토의하기) | <p>▶ 쟁점에 대해 토의하기</p> <p>쟁점 1. 폐정개혁안 『전봉준 공초』, 『집강소 12개』에서 발췌</p> <p>쟁점 2. 청일전쟁 당시 조선 내부의 상황 『금번집략』, 『경인일보』 기사, 일부 논문에서 발췌</p> <p>쟁점 3. 조선 내부의 신분 갈등관계</p> | <p>- 쟁점과 본인이 읽었던 교과서의 내용을 비교하면서 토의를 진행한다.</p> <p>※ 사전에 쟁점을 알려줘서 추가적인 자료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p> | ○ 토의를 하면서 서기는 토의 내용을 적는다. | 8 |
| | 활동 4 (활동지 정리하기) | ▶ 토의된 내용을 정리하도록 알려준다. | ▶ 각 모둠별로 토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활동지에 적는다. | ○ 토의가 어느 정도 끝나면 학생들은 | 2 |
| 정리 및 평가 | 학습 목표 제시 | <p>▶ 활동지 작성요령 공지</p> <p>- 조별로 작성해 오도록 하기</p> <p>- 읽기자료 제시</p> <p>※ 사전적 회고록 “늙은 외교관의 회고-김인문”</p> <p>▶ 평가에 들어갈 것이라고 공지한다.</p> | <p>- 활동지를 챙긴다.</p> <p>- 추가적인 내용을 조사해온다.</p> | <p>○ 각 조별로 읽기자료는 한 장씩 나누어 준다.</p> <p>○ 활동지는 제출해야 함으로 읽</p> | 5 |

| | | | | | |
|--|--|---|--|-----------------------------|--|
| | | ▶ 다음차시 예고 - 활동지 발표 ▶ 추가 내용 찾아오기 | | 어 버 리 지 말도 록 주 의 준 다. | |
|--|--|---|--|-----------------------------|--|

《표 4》 동학 농민 운동 내러티브 교수- 학습 지도안 2차시(50분)

| | | | | | |
|------|---|---|-----|---------------|-----------|
| 교과명 | 한국사 | 대상 | 고 1 | 지도교사 | 주정민 |
| 대단원 | 국제질서의 변동과 근대 국가 수립운동 | 차시 | 2/2 | 장소 | 미정 |
| 소단원 | “Doing History” 수업 | | | 학습모형 | 강의식 수업 |
| 학습목표 | 1. 동학 농민 운동의 전반적인 맥락을 설명할 수 있다 2. 내러티브 글쓰기를 통해 역사적 사실을 작성할 수 있다. | | | | |
| 준비물 | 교사 | | | 학생 | |
| | 지도안, 활동지, 읽기자료 | | | 활동지, 노트, 필기도구 | |
| 학습단계 | 교수-학습활동 | | | 자료 및 유의점 | 시간 (분) |
| | 교사 | | 학생 | | |
| 도입 | 인사 및 전시 학습 확인 | ▶ 인사 및 출석 점검 ▶ 전시 학습 내용확인 - 쟁점 3개 판서하기 - 활동지 작성 확인 | | | 5 |
| | 조 구성 | ▶ 모둠별로 앉기 1 2 3 4 5 6 | | | |

| 학습단계 | | 교수-학습활동 | | 자료 및 유의점 | 시간 (분) |
|------|----------|---|--|---|--------|
| | | 교사 | 학생 | | |
| | 동기 유발 | ▶ 김인문의 회고록(38)를 통해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감정적 이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본다. | - 예시글을 가볍게 읽어 보기 * 학습자는 역사적 사건의 전체적인 전개과정을 어떤 식으로 살펴봤는지 본다. | - 읽기자료 | 2 |
| | 학습 목표 제시 | ▶ 각 조별로 발표할 내용 판서하기 ▶ 발표 순서정하기 ※ 제비뽑기나 가위바위보 게임을 통해 순서를 정하도록 한다. | - 발표 준비 - 순서 정하기 | - 교과서 ○ 조장이 나와 순서를 정한다. | 3 |
| | 수업 전개 안내 | 1. 활동 1: 모듬조 발표하기(순서대로) 2. 활동 2: 발표한 내용을 질문하기(한 조당 2개정도) 3. 활동 3: 수업 내용 정리하기 | | | |
| 전개 | 활동 1 | ▶ 활동 1. 각 모듬조 발표하기 - 왜 이 쟁점을 선정했는지 말한다. - 발표할 내용은 이전 차시에 나눠준 활동지에 작성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 활동지의 내용 중 3번(글쓰기)만을 발표한다 - 발표 시간은 3분을 넘기지 않는다 -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대표가 발표한다. | - 각 조의 발표를 주의 깊게 듣는다. - 물어보고 싶은 질문을 적어놓는다. | ○ 다른 조가 떠들지 않도록 주의시킨다. ○ 발표 시간이 늘어지면 조절한다. | 20 |

| 학습단계 | | 교수-학습활동 | | 자료 및 유의점 | 시간 (분) |
|---------|----------|---|--|---|--------|
| | | 교사 | 학생 | | |
| 전개 | 활동 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2. 발표내용 질문하기 - 질의응답이 너무 늘어지지 않도록 한다. - 관련 없는 내용을 질문 받을 때 적절한 선에서 대답을 유도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궁금한 점을 질문한다. -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적어 놓는다 | | 10 |
| | 활동 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3. 수업 내용 정리 및 평가 - 선택한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활동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준다. - 수업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본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명을 듣고 이해가 부족한 내용을 보충한다. - 수업을 진행하면서 좀 더 들었으면 하는 내용을 교사에게 질문한다. | | 7 |
| 정리 및 평가 | 학습 목표 제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차시 예고 ▶ 수업 정리 - 활동지 제출 요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정리 - 활동지 제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장이 활동지를 수합한다. ○ 활동지에 각 조의 이름을 썼는지 확인한다. | 3 |

38) 문창로, 「'역사글쓰기'를 통한 사료학습의 접근방안」, 『중등교육연구』 53(1), 2005, 268~269쪽

3. 학습 활동지 제작

1차시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 사이에서 쟁점에 대한 논의가 충분이 이뤄졌다면 학습 활동지는 이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다. 활동지는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수업에서 흥미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도구이다. 교사는 활동지를 이용하여 학습의 패러다임을 교사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또한 수행 평가 같은 목적을 제시하여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심어줄 수 있다. 학생 역시 단순하게 활동지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토의를 통해 협동적으로 수업에서 역사적 사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다. 학생들은 활동지를 작성하고 추가적인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스스로가 생각한 견해를 완성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많은 정보를 부여하지 않는 활동지가 필요하다. 다만 발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제약상 내용의 양은 한 장을 넘기지 않도록 지시해야 한다.

본 수업의 활동지는 쟁점에 따라 총 3문제로 진행하려 한다. 수업시간에서 배운 내용과 교과서의 서술내용을 읽고 난 다음 토의를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2개의 풀이 문제와 이를 바탕으로 실제로 글을 써볼 수 있는 서술형 문제로 구성한다. 토의를 통해 이루어진 문제들은 1차시에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글쓰기 문제는 작성한 내용을 직접 발표하고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내러티브 형태의 글쓰기다.

(1) 학습 활동지 1.

『첨부 1』의 학습 활동지 1에는 두 개의 폐정개혁안 사료를 실어놓고 학생들에게 교과서의 비판적 읽기를 통한 서브텍스트가 제대로 이해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 활동지에는 1차적 사료인 두 개의 폐정개혁안 사료를 제시한다. 폐정개혁안 중에서 동학농민운동이 발생한 시기와 가장 근접하게 작성했던 「사료 1」의 「전봉준 공초」에서 나온 14개조 폐정개혁안은 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인

용된 사료이다. 공초는 실제로 재판과정을 기록해 놓은 공식문서여서 사료의 정확에선 다른 어떤 폐정개혁안 사료보다 신뢰도가 높은 기록이다. 「사료 2」는 오지영의 동학사에 실려 있는 『집강소 12개조』 요강이다. 『집강소 12개조』를 두 번째 사료로 선택한 이유는 앞의 공초의 내용과는 요구하는 항목들이 달라 학생들이 두 사료를 읽으면서 서로 비교·분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번 문항은 이러한 비교, 분석을 학생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문제이다. 2번 문항은 폐정개혁안과 갑오개혁과의 연관성을 찾고, 교과서의 비판적 읽기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는 문제이다. 학생들은 토의를 통해 교과서 내용과 사료를 비교하며 핵심적인 부분을 학습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3번 문항은 당시의 인물이 되어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면서 실제로 폐정개혁안에서 농민들의 요구를 학생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내러티브 글쓰기를 진행한다.

(2) 학습 활동지 2.

『첨부 2』의 학습 활동지 2는 청일전쟁의 원인을 교과서를 통해 알아보고 당시 조선인들의 반응과 전쟁에 대한 대응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사료 1의 두 글은 당시 청나라와 일본의 군대가 조선에서 평민들뿐만 아니라 관리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사료 1-1」은 동학농민운동 당시 충청도 관찰사로 재임하고 있던 이현영의 『금번집략』 중 일부를 실은 것이다. 「사료 1-2」는 당시 청일전쟁에 영국의 종군기자 겸 화가였던 후리프의 글³⁹⁾을 인용한 것이다.

「사료 1-1」과 「1-2」 모두 개인이 경험했던 일을 일기와 기사로 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인 사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1번 문항을 통해 학생들의 감정이입과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다음으로 「사료 2」는 동학농민운동을 이끌었던 전봉준이 일본군에 대항하기

39) 경인일보 2011년 11월 9일자 연중기획 시리즈 “청일전쟁”

위해 당시의 충청감사 박제순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글이다. 이 글을 통해 제 2차 동학농민운동이 농민군과 하층민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척왜양”이라는 문구아래 다른 신분도 저항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2번 문항은 교과서에서 살펴봤던 농민군의 반응을 새로운 시각으로 살펴보는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3번 문항은 청일 전쟁으로 일어났던 제 2차 동학농민운동을 살펴봄으로써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하고 농민군의 입장에서 재봉기를 할 수 밖에 없었는지를 내러티브 글쓰기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3) 학습 활동지 3.

『첨부 3』의 학습 활동지 3은 동학농민운동 당시 민보군에 대한 사료와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사료를 통해 당시 농민군과 양반층의 갈등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활동지이다. 교과서에서는 동학의 의의를 설명할 때 반봉건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이에 대한 인과관계에 대한 서술은 부족할 수 있다. 또한 교과서의 서술에서 민보군에 대한 설명이 없어 학생들이 민보군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1차시 수업에 이미 영상을 통해 민보군이 무엇이고 이들이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를 보여주었지만 활동지를 통해 좀 더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다.

「사료 1-1」의 당시 민보군의 어떻게 활동했고 그로 인한 피해가 무엇이었는지를 김양식의 책에서 발췌한 글이다. 이 글에선 동학농민운동 당시 농민군의 활동뿐만 아니라 대척점에 서있던 민보군의 활동까지 서술했다. 「사료 1-2」는 단편적인 글이지만 동학군을 토벌했던 군관으로 참전했던 이두황이 쓴 진중일기 『양호우선봉일기』 중 일부를 발췌한 사료이다. 이 글 역시 일기 형식이지만 실제로 동학농민운동을 토벌했던 관군의 입장에서 민보군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엿볼 수 있다. 또한 민보군이라고 활동했던 사람들이 단순하게 동학농민군에 적대적이었던 양반뿐만 아니라 이러한 민보군의 활동을 악용했던 사람들도 존재했다는 기록되어 있다. 이 글을 통해 1번 문항에서 학생들은 민보군에 대한 다른 시각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끌어 내면 된다.

「사료 2」는 당시 감신정변을 비롯하여 근대의 사건에 대해 많은 기록을 남겼던 황현의 『오하기문』 중 일부를 발췌하여 학생들에게 제시했다. 2번 문항은 활동지에 나와 있는 사료들을 검토하여 교과서에서 신분갈등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이다. 비판적 읽기를 통해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한 학생이라면 이 문항에 대해서 동학농민운동의 결과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마지막 3번 문항은 교과서에서 서술되어 있지 않는 동학농민전쟁의 후손이라고 상상하면서 이들이 이후 어떻게 행동했는지 내러티브 글쓰기를 통해 파악하는 문제이다. 미래엔 교과서에선 동학농민운동 이후 일부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의병활동에 참여하거나 민족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서술되어 있다. 학생들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글쓰기를 통해 전체적인 역사적 흐름을 인식해 가도록 하면 된다.

V.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역사수업에서 내러티브를 적용한 연구들의 최종 목적은 학생들이 스스로 역사를 판단하고 사고할 수 있는 “역사적 사고력”을 함양시키는 것이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도 최근 다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내러티브를 통해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역사적 사고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수업방안을 구상하였다. 또한 수많은 사건이 발생한 근대사에서 “동학 농민 운동”이라는 소재를 학습내용으로 선정하는 것은 역사교과의 교육 내용으로서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 교육목표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동학 농민 운동은 다른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던 역사적 시기이므로 이 글에서 추구하고자 했던 수업모형의 소재로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아직까지도 역사교육 현장교육에서 암기식 수업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유는 한국사가 “집중이수제”를 통해 정해진 기간 내에 한국사 한 과목을 모두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교사는 방대한 분량을 소화하기 위해 교과서를 통한 역사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학생들은 진도가 빠르고 암기할 것도 많은 역사수업에 대해 지미를 느낄 수 없다. 더욱이 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학생들의 역사적 사고력이 충족되지 않은 수업이 진행된다면 역사를 너무 일반화하거나 단순하게 도식화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런 수업에선 교사도 학생도 역사에 대해서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잃는다.

그렇지만 교과시간 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내러티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경우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역사적 사고력이 함양되고, 연대기 파악이 가능해진다. 그렇게 된다면 맥락을 상세하게 서술하지 않는 교과서를 비판하거나 논란이 되는 사건에 대해 호기심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⁴⁰⁾

그렇다면 이 논문에서 제시한 내러티브 수업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일까?

첫째, 교사 위주의 수업에서 학생 위주의 수업으로 진행할 수 있다. 강의식 수업

40) 이해영, 「학생들의 역사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 『역사교육연구』 20, 2014

은 교사가 아무리 이야기체로 재미있게 수업을 진행한다고 해도 수업과정 전부를 교사 혼자 진행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수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는 적고 오히려 교사에 의해 역사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과 개념만을 암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내러티브 수업형태에선 교사가 참여하는 과정보다 학생들이 실제로 수업에 참여하는 시간이 많다. 학생들은 토의를 통해 의견을 종합하여 활동지를 작성하고 이를 발표하면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교사는 보조자 내지 안내자로 수업을 지도하면서 학생들에게 학습동기와 의욕을 자극시키는 역할만 한다.

둘째, 학생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부분에 대해 흥미있는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박태열⁴¹⁾은 수업 만족도 조사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역사 인식은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정치적 사건, 전쟁, 민중반란, 문화와 예술 분야에서 관심이 높다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는 테마를 파악하여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한다. 동학 농민 운동이라는 소재 역시 학생들이 전체적인 내용을 암기하고 배우는 것보다 쟁점을 통해 각각의 테마를 파악함으로써 학생들의 흥미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준다.

셋째, 내러티브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조별로 토의를 진행하여 학습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역사 내러티브는 역사적 담론과 이야기가 공존하는 이야기의 서술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을 진행하다보면 자연스럽게 교사의 역사적 담론을 학생들이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토의를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도출하고 이를 확인한다면 학생들은 역사인식에서 자신만의 담론을 만들 수 있다. 또한 또래와의 문답을 통해 정서적인 상호작용과 협동과 경쟁의 원리로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도 유도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역사에 대한 이해도나 지식이 떨어질 수 있는 학생이 혼자 과제를 수행하는 것보다 서로 도와가면서 수업을 진행하여 자아의식의 성장과 사회성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를 함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료를 통한 내러티브 글쓰기를 작성함으로써 사료해독 능력과 역사

41) 박태열, 「역사교과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개선방안 연구」,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2012, 10쪽

이해 수준을 높이고 역사적 사고력을 신장할 수 있다. 감정 이입적 이해를 통해 내러티브 글쓰기를 진행하려면 학습자는 역사적 맥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과거에 대한 상상력이 필요하다. 양호환⁴²⁾은 내러티브의 기능을 활용하면 시간과 인과성을 학습자가 파악하여 사건의 관계를 표현하기 적합하고 자료로부터 역사를 맥락화하기 쉽다고 이야기한다. 본 논문에서 이러한 내러티브를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이 좀 더 역사를 쉽게 이해하고 개인의 역사적 사고력을 키우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이러한 과정에서 몇 가지의 제한점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학습 주제와 대상 선정, 그리고 수업계획서와 활동지를 작성했지만 실제로 학생들에게 적용해 보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둘째, 동학 농민 운동에 대한 사료의 한계가 존재한다. 사료의 정확성을 위해 논란이 많은 사료는 학생들에게 제공하지 않았고 되도록 동학농민운동 당시의 기록을 찾아보니 일기나 기사문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셋째, 본 연구에서 두 번에 걸쳐 교과서 “비판적 읽기”를 수업시간에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 두 차례의 “비판적 읽기”로 학생들의 역사적 사고력이 쉽게 발전할 수 있는지 확신하기가 어렵다.

본 논문에서 쟁점을 통한 내러티브 수업을 제안한 것은 지금 역사를 배우는 학교 현장에서는 역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역사가의 관점과 그에 대한 역사적 상황은 잘 나타나 있지 않다. 오히려 연표와 연대기만을 중심으로 역사적 사건을 단어로만 외우는 수업형태가 지속될 뿐이다. 그로 인해 역사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역사를 이해하는 방법에 대한 상호소통이 필요하다고 여겼다.

그래서 본 연구를 통해 내러티브의 긍정적인 효과를 통해 학생들의 역사적 사고력이 함양되고 이를 통해 올바른 역사적인 관계성을 학생들이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수업의 흥미를 통해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학생들이 수동적인 학습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학습자로서 바뀌어 나가기를 바란다.

42) 양호환, 「인지발달과 역사이해」, 『역사교육의 이해』, 2001,삼지원

참고문헌

1. 단행본

- 강준만, 『한국 근대사 산책 2』, 인물과 사상사, 2007
- 김한중, 『역사교육의 이론과 방법』, 삼지원, 1997
- _____ 외, 『역사교육의 이해』, 삼지원, 2001
- 김희영, 『동학농민혁명의 지역적 전개와 사회활동』,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새길, 1995
- 박맹수, 『사료로 보는 동학과 동학농민혁명』, 모시는 사람들, 2009
- 배항섭, 『동학농민전쟁에 대한 역사교과서 서술 내용의 새로운 모색』, 역사와 담론, 2012.
- 신용하, 『한국 근대사와 사회변동』, 문학과 지성사, 1980
- 양호환, 『역사교육의 입론과 구성』, 책과 함께, 2012
- 유영익, 『동학농민봉기와 갑오경장』, 일조각, 1998
- 이이화, 『민족사의 전개와 그 문화 (하)』, 1990
- 정창렬, 『동학농민혁명의 동아시아적인 의미』,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2002
- 최상훈, 『역사교육과 역사인식』, 책과 함께, 2005

2. 논문

- 강선주, 「역사교육의 목적과 초등교사 역사교육관」. 『역사교육』 108, 2008
- 김경순, 「갑오농민전쟁에 관한 연구」, 이대박사학위, 1987
- 김정찬, 「내러티브적 역사인식과 역사교육」, 『청림사학』 7, 2003
- 김태웅, 「해방 후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서 1894년 농민전쟁 서술의 변천」, 『역사교육』 133, 2012
- 김한중, 이영효, 「비판적 역사 읽기와 역사쓰기」, 『역사교육』 81
- _____, 「교육과정 구성원리로 본 2015 교육개정」, 『역사교육연구』 23, 2015

- _____, 「국사교과서 연구의 최근 동향」, 『한국교원대학교 기성회계 학술연구 보고서』, 2000
- _____, 「역사수업 도구로서 내러티브의 구성형식과 원리」, 『사회과교육학연구』 3, 1999,
- _____, 「역사적 사고력의 개념과 그 교육적 의미」, 『역사교육의 이론과 방법』, 삼지원, 1997
- _____ · 이영호, 「비판적 역사읽기와 역사쓰기」, 『역사교육』 81, 2002
- 김준형, 「서부경남지역의 동학군 봉기와 지배층의 대응」, 『경상사학』 7,8집, 1992
- 김희영, 「어느 서양인의 눈에 비친 소래마을의 동학농민전쟁」, 『동학연구』 28, 2010
- 도면희, 「근대=자본주의사회의 기점으로서의 갑오개혁」, 『역사와 현실』 9, 1993
- 박맹수, 「매천 황현의 동학농민군과 일본군에 대한 인식」, 『한국사연구』 2015,
- 방지원, 「내러티브적 교재 구성 방안」, 『청림사학』 7, 2003
- _____, 「역사수업 계열화의 개념과 원리」, 『역사교육연구』 3, 2006
- 박태열, 「역사교과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개선방안 연구」,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2012,
- 신수정, 「고등학교 세계사 교육에서의 사료학습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4,
- 신영우, 「내포 일대의 갑오년 상황과 동학농민군의 봉기」, 『동학학보』 29, 2013
- _____, 「1894년 고창지역 동학농민군의 진압과 민보군」, 『동학학보』 30, 2014
- _____, 「1894년 영남 상주의 농민군과 소모영」, 『동방학지』 51, 1986
- _____, 「1894년 영남 서북부지방의 농민군 지도자의 신분」, 『학림』 10, 1988
- _____, 「1894년 영남의 동학농민군과 동남부 일대의 상황」, 『동학학보』 30, 2014
- 악운봉, 「동학 농민 운동과 태평천국운동의 비교분석」, 한서대학교 대학원, 2014
- 양호환, 「서술주체와 관점- 역사교과서 읽기와 관련하여」, 『역사교육』 68, 1998
- 오연미, 「역사수업에서의 영화역사 활용의 일례: “도마 안중근”을 중심으로」,

- 단국대학교 석사, 2009
- 이영호, 「내러티브 양식의 역사서술체제 개발」, 『사회과교육 42(4)』, 2003.
- 이승은, 「내러티브란 무엇인가」, 『교육비평』 29, 2011
- 이혜경, 「영화를 이용한 역사수업: 역사적 사고력 향상을 중심으로」, 중앙대 교육대학원 석사.2005
- 이혜영, 「학생들의 역사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 『역사교육연구』 20, 2014
- 최규진, 「청일전쟁기 지식인의 국제정서 인식과 세계관」, 『아시아문화연구소』 26,
- 최승희, 「書院(儒林)勢力的 東學 排斥運動 小考- 1863년도 東學排斥通文 分析」, 한우근박사정년기념사학논총, 1981
- 최상훈, 「역사적 사고력의 의미와 하위범주」, 『역사교육과 역사인식』, 책과 함께, 2005)
- 최재욱, 「영화를 활용한 주제중심 학습모형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4
- 최호근, 「내러티브와 역사교육」, 『역사교육』 123, 2013
- 홍정환, 「사료학습을 활용한 역사수업 구성: 고등학교 국사 ‘근대 태동기의 사회’ 단원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3. 기타자료

- 2014.01.10. JTBC “미래엔 한국사 교과서 채택 1위, 이념 논란 적다”
- 경인일보 2011년 11월 9일자 연중기획 시리즈 “청일전쟁”

ABSTRACT(영문초록)

Narrative Teaching Model for promoting historical thinking

jungmin ju
History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university

Recently, there is a lot of teacher's attempts to make academic class dynamic with students by using various contents and materials related to history. And by applying this class style, history teachers pursue student's continuous interest in history beyond just understanding of history itself. Teachers also want to broaden their way of seeing the history with different views through an interesting and dynamic history course, however, if teachers too much emphasize on entertainment part for history course, it can result in hindering development of student's ability to think historically.

For this reason, studies of how to achieve the dual target of "having an interest" and "ability to think historically" within a limited time have been continuously conducted. It is suggested to conduct studies of history class using narratives to enhance a sense of achievement and improve the ability to think historically among many other class

materials as wel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ultivate the ability to think historically and encourage students to have an interest in a history class by applying historical narratives to the class.

This paper is to plan a history class by using historical narrative with 10th grade highschool students who are learning history of Korea and have a grown historical consciousness. For a narrative class, one single major theme is required. For this reason, various class forms can be designed and a peasant movement, suggested as a mandatory subject to learn in the current academic curriculum, is selected for the class.

Secondly, an issue of the subject is selected by analyzing current 8 different Korean history textbooks. After that, the teachers held a discussion on each issue by groups and shared historical consciousness and encouraged students to understand history with empathy through a narrative writing activity. Furthermore, various data were given to the students to provide in-depth study contents.

부록 목차

1. 「학습활동지 1」에 대한 실제
2. 「학습활동지 2」에 대한 실제
3. 「학습활동지 3」에 대한 실제
4. 「읽기자료」에 대한 실제

<부록 1> 「학습 활동지 1」에 대한 실제

쟁점 1. 폐정개혁안과 갑오개혁

아래의 질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토의를 진행한 후 서술하시오.

| | | | |
|-----|------------------------------|-----|-------------------|
| 단원명 | 3. 구국운동과 근대 국가 수립운동의 전개(조:) | | |
| 날짜 | | 1학년 | 반 번 이름: |

자료 1) 폐정개혁안 14개조

1. 전운소를 혁파할 것
2. 국결을 더하지 말 것
3. 보부상들의 작폐를 금지시킬 것
4. 도 내 환전은 옛 감사가 거두어 갔으니 민간에 다시 징수하지 말 것
5. 대동미를 상납한 기간에 각 포구 잠상(외국상인과 그들의 수하인 매관 상인들)의 미곡 무역을 금할 것
6. 동포전은 매호 봄, 가을로 2량씩 정할 것
7. 탐관오리를 파면시킬 것
8. 위로 임금의 총명을 가리고 관작을 팔아 국권을 농락한 자들을 축출할 것
9. 관장이 된 자는 관할 지역에 묘지를 쓸수 없게 하고 또한 논도 살수 없게 할 것
10. 전세는 전례에 따를 것
11. 집집에 부과하는 잡역을 줄여 없앨 것
12. 포구의 어염세를 혁파할 것
13. 보세와 관답을 시행하지 말 것
14. 각 고을의 수령들이 내려와 백성 소유의 산지를 사들이고 묘를 못하게 할 것

(<전봉준 공초>정창렬, 「갑오농민전쟁 연구- 전봉준의 사상과 행동을 중심으로」, 1991,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논문에서 재인용)

자료 2) 집강소 12개 행정요강

1. 동학교도와 정부와의 사이에 오래 지속되어 온 감정을 씻어버리고 서민 행정에 협력할 것
2. 탐관오리는 그 죄목을 조사해 내어 일일이 엄장할 것
3. 횡포한 부호패들을 엄장할 것

4. 불량한 유립과 양반배는 못된 버릇을 징계할 것
5. 노비문서는 불태워 버릴 것
6. 칠반천인의 대우를 개선하고 백정 머리에 쓰는 평양립을 벗어버릴 것
7. 청춘과부의 재가를 허락할 것
8. 무명잡세는 일체 거두어들이지 말 것
9. 관리 채용은 지벌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할 것
10. 적과 내통하는 자는 엄징할 것
11. 공사체를 막론하고 기왕의 것은 모두 무효로 할 것
12. 토지는 평균하게 나누어 경작하게 할 것

(권태역 외, 『근현대 한국탐사』, 역사비평사, 1997, 80~81쪽에서 인용)

1. 「사료 1」과 「사료 2」는 모두 폐정개혁안에 대한 내용이다. 두 사료의 비교, 분석하였을 때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지 토의하시오.

· 공통점:

· 차이점:

2. 교과서 198쪽에는 제 1차 갑오개혁안이 실려있다. 교과서의 사료와 활동지의 두 사료를 살펴 보았을 때 갑오개혁안에 농민들의 요구가 반영되었는지 토의하시오

3. 1894년의 고부봉기에 참여했던 농민이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군국기무처에서 갑오개혁을 만든다면 어떻게 할지 글로 써보자(글의 분량은 A4 1장, 글의 형식은 시, 일기, 편지, 수필, 소설, 논설문 등 자유롭게 하십시오)

< 부록 2> 「학습 활동지 2」에 대한 실제

쟁점 2. 청일전쟁의 원인과 조선인들의 인식과 반응

아래의 질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토의를 진행한 후 서술하시오.

| | | | |
|-----|------------------------------|---|-------|
| 단원명 | 3. 구국운동과 근대 국가 수립운동의 전개(조:) | | |
| 날짜 | 1학년 | 반 | 번 이름: |

사료 1-1)

중국군대가 출발하여 나간 상황은 이미 임금께 급히 보고하였으며, 지난 6월 27일 오시 무렵에 몇 천명인지 알 수 없는 일본군들이 각각 총과 칼을 가지고 마대(馬隊)와 함께 혹은 성환으로 가는 길을 따라가고 혹은 백석포에서부터 출발하여, 일시에 갑자기 빠르게 진격하기도 하고, 혹은 객사에 주둔하거나, 혹은 사면으로 산판(山坂)에 주둔하면서 사직(社稷)을 불태웠습니다. 이어서 인가와 각각의 관청건물 등에 들어가 남아 있는 돈과 곡식 및 여러 물건들을 모두 빼앗아 갔으며, 각 항목에 대한 장부[文簿]들도 모두 불에 타고 찢겨 졌습니다.

도로의 민가와 의복, 그릇, 여러 가지 물건들이 부서지고 찢겨졌고, 뒤져서 가져간 것이 그 수를 알 수 없으며, 위협하고 능멸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관리와 백성 사이에서 남녀노소가 이러한 광경을 보고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서로 따라서 울부짖으며, 모두가 목숨을 보존하려고 도망하여 숨었습니다. 현감도 또한 1~2명의 하인을 이끌고 잠시 산골짜기에 피해 있다가, 대세가 조금 누그러지기를 기다려 마을로 들어가서 살펴보았습니다.

아산현감 정인진의 보고

(국사편찬위원회 금번집략 제 4권 7월 초 4일에서 인용)

사료 1-2)

“힘없고 불행한 조선인들에 대해 청나라의 태도는 매우 고압적이었다. 당시 청나라의 병참부는 매우 낙후되어 조선주민들로부터 식량 등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게 하였다. 이를 거부하거나 반항하는 소유주들은 즉시 총살하는 등 무자비하게 다루었다.”

1895년 3월 9일자 잡지 그래픽에 실린 영국 중군기자 후리프의 글

(경인일보 2011년 11월 9일자 기사 참고)

사료 2)

일본의 도둑이 빌미를 꾸며 군사를 내어 우리의 군부를 꺾박하고 우리 인민을 흔들어 놓으니 이를 어찌 차마 다 말하리오. 저 임진년때 임금과 어비이를 옥보이고 수많은 인민을 살육하여 신민이 함께 통분함은 천고에 잊지 못할 원인입니다...지금 조정의 대신은 망령되이 구차하게 살아보려는 마음이 생겨 위로는 군부를 협박하고 아래로는 인민을 속여서 일본 오랑캐와 배짱을 맞추어 남쪽 백성에게 원망을 불러오고 망령되이 신병을 움직여 선왕의 적자를 해치고자 하니 진술로 무슨 뜻입니까?

전봉준이 충청감사 박제순에게 10월 16일(음력)에 보낸 글
(정진영, 「1984년 농민전쟁기 향촌지배층의 동향」, 『1894년 농민전쟁연구 5』, 역사비평사, 2003에서 인용)

1. 교과서에서 서술된 청일전쟁의 원인을 살펴보고 「사료 1-1」와 「사료 1-2」에 읽어보면서 청일전쟁을 어떻게 느꼈는지 토의해보자.

2. 「사료 2」를 통해 당시 청일전쟁에 대한 농민군의 반응이 교과서에서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당시의 상황을 토의해보자.

3 당시의 농민군이라고 생각하고 청일전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내러티브 글쓰기를 하시오.(글의 분량은 A4 1장, 글의 형식은 시, 일기, 편지, 수필, 소설, 논설문 등 자유롭게 하십시오)

< 부록 3> 「학습 활동지 3」에 대한 실제

쟁점 3. 동학농민군과 민보군의 갈등

아래의 질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토의를 진행한 후 서술하시오.

| | | | | | |
|-----|------------------------------------|-----|---|---|-----|
| 단원명 | 3. 구국운동과 근대 국가 수립운동의 전개(민보군과 신분갈등) | | | | |
| 날짜 | | 1학년 | 반 | 번 | 이름: |

자료 1)

“민보군의 농민군 토벌은 무자비하였다. 그들은 일본군과 정부군의 지위통제를 받아 농민군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 재산을 몰수하고 농민군의 근거지였던 도소와 그들의 가옥 불태웠다. 특히 민보군은 현지사정에 밝고 농민군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농민군 토벌 외에 잔여세력을 일망타진하는데 효과적이었다. 농민군을 토벌한 직접적인 군사력이 일본군을 중심으로 한 진압부대였다면 그것을 가능케 한 사회적 토대는 양반사족층과 향리, 수령층이 이끄는 민보군이었다.

(김양식, 『근대 한국의 사회변동과 농민전쟁』, 신서원, 1996, 358~361쪽에서 인용)

소위 호남, 호서에서 남접이라고 이르는 자들이 도당을 모으고는 평민을 침략하고 도민을 살해하였다...이에 조칙을 받들고 칙령에 이어 행패를 금하는 방문을 각처에 기재하고 삼강오륜을 밝혀 보국안민책을 삼으려 했다. 그런데도 진천 거주 허문숙은 민보라고 도당을 모아 인명을 살육하고 재산을 빼앗는데 그 화를 당하는 자는 모두 도인뿐이었다.

- 양호우선봉일기 9월 25일자 충주 본산 동학대접주 이재한 상소 -

(동학란기록 上, 261쪽에서 인용)

자료 2)

도적당은 모두 천인노비이므로 양반 사족을 가장 미워하였다. 그래서 양반을 표시하는 뽕족 관을 쓴자를 만나면 곧 꾸짖어 말하기를 “너도 역시 양반이냐”하고 관을 벗기어 빼앗아버리거나 또는 그 관을 자기가 쓰고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양반을 욕주었다

(『오하기문』 2필, 《사계대계 1》, 214쪽에서 인용)

1. 「사료 1」을 읽고 민보군에서 활동했던 신분계층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 토의해보자.

2. 「사료 1」과 「사료 2」를 통해 당시 두 신분계층의 갈등이 왜 일어났고, 어떠한지 토의해보자.

3. 당시에 토벌 당했던 동학농민군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이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교과서를 통해 추측하여 내러티브 글쓰기를 하시오. (글의 분량은 A4 1장, 글의 형식은 시, 일기, 편지, 수필, 소설, 논설문 등 자유롭게 하십시오)

《부록 4》 「읽기자료 1」 . - 자전적 회고록 “늙은 외교관의 회고-김인문”

김인문은 신라 태종무열왕의 아들이다. 진덕왕 2년에 당나라에 가 숙위에 임명되고 나당연합이 잘 성사될 수 있도록 한 인물이다. 또한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신라를 통일에 기여한 외교의 달인이었다. 그러나 후대의 평가에는 그의 외교에 부정적인 평가도 존재했다.

... 나는 한 평생을 외교관으로 살아왔다. 내가 이곳 당에서 활동한 기간을 햇수로만 치면, 벌써 22년이나 된다. 지금은 내가 늙어 내 몸 하나 추스르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 병상에 누워 있지만, 내 조국을 위해 살아왔던 삶과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무수한 결정과 행동은 66세 먹은 지금에서 헤아려 보아도 한 점 부끄럼이 없다고 생각한다. ...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대의 상황과 나에 대한 평가가 후대 사람들에 의해 어떻게 매겨지게 될지 심히 걱정이 되기도 한다. ... 신라와 당 사이에 상충되는 현안에 대해서는 인간적인 갈등을 수반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나는 당나라의 숙위이기 이전에 신라의 구성원이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상충되는 현안들이 순조롭게 해결되어 지금껏 당나라에서 숨으려 내쫓을 수 있게 되었다. 죽기 전에 신라로 되돌아가고 싶지만 여건상 그것은 허락되지 않을 듯하다. 하지만 내 삶을 당나라 숙위로서 백제와 고구려를 격파하여 신라의 독자적인 위치를 공고히 하는데 보냈으므로 고국에 가 있지 않아도 눈을 감는 그날까지 내 자신에 대해 만족하며 지낼 것이다.